

# AI 냉각시스템, 수출 주역으로 육성 R&D 1300억 투입해 기술력 강화

산업장관, LG 평택칠러공장 찾아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육성 박차  
연말까지 3500억 수출보험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을 수출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데이터센터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용 칠러(Chiller) 생산의 핵심 기지로 꼽힌다. 칠러는 데이터센터 내부 장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를 파이프를 통해 공급하는 장치다. 액침냉각은 서버 등 장비비를 특수 액체에 담겨 냉각하는 기술을 뜻한다.

LG전자는 글로벌 칠러 제조사 중 유일하게 대용량 공랭식 칠러에 무급유 자기베어링 기술을 적용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급유 자기베어링 기술은 칠러 내부의 고속 회전 압축기 모터 축을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지탱하면서 회전시키는 첨단 기술이다. 이 방식은 기존 급유 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어링 방식에 비해 소음과 에너지 손실이 적어 차세대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산업부는 AI 반도체, 전력 기자재, 냉각 시스템을 글로벌 AI 열풍을 활용한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반도체는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를 육성해 수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책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칠러와 향온습기 등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 3500억 원 규모의 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보험 한도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20% 인하하는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열 관리와 서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며 “기업들이 실적을 쌓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 관리, 실증 및 시운전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총 18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실증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 “일자리 창출, 노동법·제도 유연화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 본관 3동 1층 다목적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상공회의소와 시흥상공회의소와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산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시장 수요가 감소했을 때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맞춰 업무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여력도 생



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에는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많지만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고객사의 요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 신뢰도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론했다.

고용부는 김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유연한 법·제도가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근간은 노사법치”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대환기자

## 녹색산업 인재 양성... 특성화고 5곳 지정

환경부, 5년간 매년 2억 지원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탄소중립 달성 등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2기 사업에 우수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공모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5곳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서울공고, 울산공고 등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 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

해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등 3곳의 학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환경분야 자격 취득 외에도 기업 연계 현장 연수, 현장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되며, 입사서류 작성, 모의 면접 및 지도 등 취업 지원을 받는다.

서영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녹색산업을 위한 현장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해 지역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사업 운영현황·모니터링 결과 공유

고용노동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2일 2024년 제3차 ‘청년 일경험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년 일경험사업의 운영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에 대응해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규모를 지난해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8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 목표 대비 97%인 4만6000명이 참여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모니터링 결과 청년은 원하는 직무 경력을 쌓기 어려운데 실전 같이 배울 수 있었고, 기업은 우수 인재 탐색·확보 측면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직무교육 내실화 등 의견도 함께 제기되어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일경험 희망 직무를 조사한 결과, 경영·사무, 정보기술(IT) 직무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회계 직무는 올해 지원 규모 대비 청년 수요가 높게 나타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종=김대환기자

## “양곡법 시행 부작용 우려 근본·구조적 대책 준비 중”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달 중 농업·농촌 개혁방안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양곡법·재해대책법 등의 이른바 ‘농업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 개혁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만나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 측이 주요 내용과 및 문제점, 정부의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며 “농정의 근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 11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 등 농업 4법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 중남미 시장 겨냥... 韓 기업 진출 전략 강화

산업부,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한-중남미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제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한 중남미 17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관련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온 중남미 관련 국내 최대 행사다. 포럼에서는 내년 1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모색했다.

중남미는 인구가 약 6억70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가 거주하는 거대 시장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년 사이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증가한 548억달러, 한국의 대 중남미 직접투자액 역시 약 16배 증가한 97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상이 페루, 브라질을 방문하는 등 상호 고위급 교류도 활발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